

미래의 디자인은 우리의 손으로

김형석 / 경희대학교 시각정보 디자인 전공 학과장

이번 제6회 한용교포장디자인상에서 경희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 전공이 단체 부문을 수상했다.

경희대학교 시각 정보 디자인 전공 학과장인 김형석 교수는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 낸 우리 학생들에게 고맙다”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부족한 작품을 높이 평가해 주신 심사위원들과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신 포장 디자인 과목 담당 교수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희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 전공은 산업 디자인학과 체제로 이어져 오다 지난 1989년 시각 디자인학과로 개설됐다. 이후 1999년도 학부제 시행에 따라 시각디자인 전공으로 개편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도에 실시되었던 전국 디자인 계열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인증 받기도 한 명실상부한 학과다.

올해 신학기부터 시각정보디자인 전공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한 이 학과는 ‘미래의 디자인은 우리의 손으로’라는 각오로 힘찬 제2의 도



약을 꿈꾸고 있다.

김형석 교수는 “그동안 약 10여 년 간에 걸쳐서 배출된 시각 정보 디자인 전공의 우수 인력들은 대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은 재학 중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의 수상을 비롯해 한국일러스트레이터협회,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등의 우수한 디자인 단체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에서 크고 작은 상을 타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은 더욱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첨단 시설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차별화 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저를 비롯한 몇몇 교수들이 단과 대학 차원의 특성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맞춤형 인재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디자이너를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가 원하는 디자이너 배출 목표

현재 경희대학교는 예술·디자인 대학 내 약 3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최첨단 시설이 착공됐다.

김 교수는 “내년 2학기 말경에 완공될 이 건물이 세워지면 우리 대학 및 전공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큰 기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생을 지도하면서 외관이 근사하고 구매 의욕을 높이는 포장일지라도 사용 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상품의 질보다는 지나치게 포장 우선의 ‘부풀리기 식’의 디자인에만 역점을 두는 것을 교육 차원에서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

즉 환경을 보존하고 동시에 포장의 기능성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포장 디자인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품의 가치는 맨 먼저 포장 디자인으로부터 생성된다”는 김 교수는 “졸업 후 포장 디자인 분야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특히 애정 어린 마음가짐과 함께 최고의 포장 디자이너로서의 꿈과 희망을 품고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교수는 포장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

들에게 “사진 자료든 실물이든 국내외의 훌륭한 다양한 포장 디자인을 접해 보고 그것을 통해 여러 가지를 느끼는 등 체험 위주의 살아 있는 학습을 스스로 해 보는 노력과 경험이 미래의 멋진 포장 디자이너가 만들어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김형석 교수는 그러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관련 단체는 우리나라가 포장 분야에서도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특히 그는 “우리 학교 재학생들이 영광을 차지한 ‘한용교 패키지 디자인상’ 처럼 권위 있고 훌륭한 공모전을 많이 유치해 포장 디자인 분야의 발전과 우수 인재 개발에도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앞으로 경희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 전공은 약 230여 명의 재학생들과 교수 전원이 하나가 되어 미래가 원하는 디자이너를 배출하는 최고의 훌륭한 학과로 성장하기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다. [ko]

이한얼 기자